

90.12.7

[전문=장세환 기자] 전북도경은 6일 손아래 동서와 짜고 자신의 딸을 사창가에 팔아넘긴 박정희(33·여·전주시 완산구 효자동1가 535-4)와 박씨의 동서 전주순(25)씨, 박씨의 딸을 윤락녀로 고용해 윤락행위를 강요한 무허가숙박업자 노부열(53·여·전주시 덕진구 서노송동 693)씨 등 3명에 대해 미성년자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와 주씨는 지난달 22일 노씨로부터 20만원 을 받고 박씨의 큰딸 양아무개(17)를 양로 노씨가 운영하는 태양영 인숙에 팔아넘겼으며 노씨는 양 양에게 윤락행위를 강요한 뒤 화 대로 받은 27만7천5백원을 가로 찼다는 것이다. 박씨의 동생인 주씨는 지난 4월부터 노씨가 경 영하는 여인숙에서 윤락녀로 일 해왔는데 노씨는 주씨로부터 월 대 2천여만원을 가로챘 혐의도

달까지
人身매매

친구 2명함께 선불받고 술집 8차례 넘겨

【大田】대전경찰서는 5일 자신의 딸과 딸의친구등 10대소녀 3명을 유혹가에 팔아넘긴 李安雨씨(39·大田市儒城區大井洞)와 무허가직업소개업자인 李정원(66·東

구(3월) 5. 周隈(씨) (38. // 佳
陽(동) 등 3명을 영민을 위
한 부녀자양육인 및 직업안
정법 위반 등 혐의로, 소년들
을 사들인 술집주인 李順子
(45. 여. 京畿道安城(金인근)씨

(44) 忠南論山 鍊武翁 年 2
 명을 700여 살이나 반했기에
 구속하고 高申대씨 (52 大田
 시西구槐亭翁)를 수배했다.
 李安雨씨는 지난 8월 ㅁㅁ
 (17)과 딸의친구인 金모(17)

차모양 17등 3명을 1번
원씨 받고 大田市中구 柳川동
밀밭초점에 팔아넘기워 10여
일후 이들을 빼돌려 다른 술
집과 다방에 선물을 받고 넘
기는 수법으로 여덟고대의